

특별기고 연재

현동의 동학(東學) 이야기

여는 말

필자는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흥행을 바라보며 이제는 무딘 필자의 붓을 들어 강호의 신사 숙녀 여러분들에게 동학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아야 하는 타이밍(timing)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勤)이지만 그간에 인류의 세계적 발돋움이 무르익고 흔하듯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국뽕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조소(아래 질문3 참조)를 듣고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필자는 20대 초반에 천도교 경전(經典)인 동경대전(東經大全)을 처음 접하고 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 동경(東京) 국립도서관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일본 신문 자료를 복사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이라는 석사 논문으로 학위(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55기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또 동학(천도교)수련을 통해 속죄(?)의 눈물을 몇 바가지나 쏟아내면서 수운 선생의 동경대전 중 논학문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의 느낌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체험은 모든 종교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임)

본고에서는 이웃 종교를 비하하거나 폄해할 의도는 전혀 없고 한류 열풍에 왜 무슨 이유로 우리의 전통 사상이 단군조선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 등 우리 고유의 가르침이 포함된 동학이 잠자고 있느냐에 대한 필자의 아쉬움을 달래는 소고(小考)입니다.

필자는 수운 선생께서 직접 저술하신 천도교경전 논학문에서 “오역생어동수어동吾亦生於東受於東始나 도수천도道雖天道나 학즉동학學則東學이라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나 학인즉 동학이라”하신 것을 살펴 본 소고에서는 학(學)을 위주로 서술하므로 주로 동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동학(東學)이 종교냐 아니냐에 대한 필자의 의견

종교 천국인 한국에서 종교宗教를 논하기에는 필자의 식견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몇 자 적어 봅니다.

혹자는 흔히 한국에서도 종동 국가처럼 종교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염려하는 이도 간혹 있지만 필자는 단언컨대 한국에서의 종교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DNA속에 세계인류를 포용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의 학문, 종교가 유입되어도 모두 한국화 되었듯이 융광로 같은 힘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용어를 처음 통용한 국가는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원래 한자 문화권에서는 특히 왕조 국가에서는 마루 종(宗)의 종자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이니 종갓집이니 하는 용어는 권위적이며 약간의 신성한 뜻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서구의 문물을 수용 발전시켜

가는 과정(특히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과의 교역 중 그들의 화승총에 매료됨)에서 소위 명치유신시기에 예수교(그 당시 천주교)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religion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의 신무기 등에 매료된 탓인지 학(學)이 아닌 『으뜸가는 가르침, 초월적인 그 무엇이다』라고 하여 종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보다 앞서 불교의 『능가경楞伽經』에서 석가의 깨달음이 최고의 경지라 해서 종종을 사용하고 그 가르침을 교교라 했으니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어디까지나 학學이었습니니다. 이에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재우(1824-1864) 선생도 예수교(그 당시는 천주교)를 서학(西學)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하여, 동방의 조선에서 천주天主(한울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도는 천도天道요 학學은 동학(東學)”이라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이 종교이니 동학도 당연히 종교입니다.

목차

도입부: 동학(東學)이 종교냐 아니냐에 대한 필자의 의견

질문 1: 서학인 예수교를 믿으면 죽은 후 천국에 가는데 동학인 천도교(동학이 곧 천도교)를 믿으면 사후에 천국 가느냐?

질문 2: 동학을 심학心學 이라고도 한는데 마음공부(동학수련)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 3: 동학이 그렇게 훌륭한 종교(?)라면 왜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의 교세가 쪼그라들어 변방의 종교로 추락했는지?

질문 4: 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의 민족 종교인 동학(천도교)이 세계화 될 가능성은?

질문 5: 동학 창도자 수운 선생이 동학과 서학은 일부는 같은데 일부는 다른 것이 이치理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요약해 주세요.

질문 6: 왜 이 시대에 동학입니까?

질문 1: 서학인 예수교를 믿으면 죽은 후 천국에 가는데 동학인 천도교(동학이 곧 천도교)를 믿으면 사후에 천국 가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답변 전에 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귀하가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귀하는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질문을 하고 말이 통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또 생물학 및 역사 등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되돌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으로 점철되어온 것이 인간들의 역사이고 구석기 시대부터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어 급기야는 핵무기까지 만들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발명하여 무생물인 기계가 학습을 하여 생각하는 기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후에 천국 간다고 믿으면 믿는 것은 귀하의 자유의지, 그 자유는 어느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마음이 편한 대로 믿으세요.

답변 2: 동학은 여타의 종교처럼 신을 인격화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가거나 부처님을 또 알라신 등등의 인격화된 신을 믿지 않습니다. 동학의 한울님(동학의 한울님은 하느님, 하나님, 상제와 동일한 의미, 이하 한울님으로 표기)은

무형의 하느님이 유행화된 것이 인간 곧 한울님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울님은 저 우주 밖의 어느 곳 천상 천국 등에 계시지 않고 우리 몸속에 즉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곧 한울님이요. 그러니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날아가도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3: 동학의 창시자 수운 및 동학 지도자들의 한울님관觀

수운 선생이 남긴 가사歌辭 8편(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문담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중 교훈가에서 수운 선생은 “한울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너의 몸에 모시고 있다.”라고 설화했으니 그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 시대에 딱 맞는 종교인가!!! 또 선생이 남긴 논학문(원래는 동학론이었으나 조선 정부의 동학 탄압으로 학문을 논한다는 논학문으로 이름을 변경함)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한울님을 위하는 글, 주문呪文(기독교의 주기도문 같은 것으로 한울님을 위하는 일종의 축문祝文인데 그 당시의 민중들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 주문으로 이름 붙여 주술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생각된다.)에 대하여 수운선생은 주문이 한울님을 위하는 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옛 글에도 있고 지금의 글에도 있다.”라고 밝혀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하단에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인 영생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믿음입니다.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영이요, 사망을 이기는 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을 이기는 영이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라야 영생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라야 영생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영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과일이요, 생명과일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바로 구세주의 영인고로, 믿음은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이기는 삶

감사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감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이나 근심,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다. 그들은 또 이해심이 많고, 용서를 잘하고, 협조적이고 도움을 베푸는 사회 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굼신거리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삶을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큰 처방약이 바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연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년이 나 더 길었다. 감사하는 삶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못마땅한 생각에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뇌가 부정적인 사고로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몸부림치면 질수록 깊은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뇌가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하여 기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정보의 방향을 바꾸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3주 동안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뇌에서는 신경의 재배선(再配線)이 일어난다. 감사하는 기본에 영향을 주면서 기발함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키워준다.

위대한 일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 거리를 만나게 된다.

감사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 기쁨을 준다. 감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도 낮고 혈압도 정상이며 다른 사람에 비하여 행복도가 25% 더 높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잠도 잘 자고 감정의 기복이 없다. 그러므로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강의를 쓴 랜디 포시 교수는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하였다.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는 “하루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매사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기쁨은 몇 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감사는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불러온다. 잠들기 전의 감사 기도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할 만한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5분의 감사 명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감사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인류는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예배 안내 (032) 343-9981

평일 1부 예배: 새벽 5시~6시,
2부 대예배: 오전 9시~10시,
3부 예배: 오후 2시~3시,
4부 예배: 오후 7시~8시

토요일: 평일 예배 3부까지 동일,
4부 예배: 오후 5시~6시

일요일 대예배: 오후 1시~3시

(이어서)

수운 선생은 미신을 믿는 우매한 민중을 교화하기 위해 포덕布德초기에는 민중들이 좋아하는 부적符籙인 영부도 사용하고 제수식祭需式을 할 경우에는 쇠고기나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했으나 해월 선생께서 『이 도는 유불선儒佛仙 산도의 가르침을 겸하고 있으니 고기종류는 쓰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천도교인이 평생 읽고 외우는 주문은 “자기금지至氣今至 원위대강願爲大降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이며 외우면서 (묵송 또는 현송) 한울님을 찾고 한울님을 위하면 그 기운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세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평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후영원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논학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영세불망만사지는 -한평생 동안 잊지 않겠사오니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수운 선생이 득도할 무렵 한울님과 대화에서 『... 나의 영부靈符를 받아 사랑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長生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라고 들었다는 것을 포덕문(수아주문 교인위아즉 여역장생 포덕천하의)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장생이라는 용어가 동경대전 곳곳에(논학문: 정기법포덕즉 영여장생 소연우천하의, 수덕문:

구송장생지주 삼칠기자, 그리고 선생주문: 자기금지시월래 시천주 영아장생무궁무궁만사지)에 등장하는데 장생을 타종교의 맹신자들이 믿는 천국이나 극락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귀하의 몫입니다. 논학문에서 그 기(氣)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온 우주에 허령虛靈이 창창蒼蒼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명령하지 않음이 없으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것 같으나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 또한 혼원渾元한 기운이다.”라고 설화했습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주의 암흑물질(Dark matter)입니다. 언젠가 인류는 과학의 진보와 함께 그 기괴의 비밀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또 동물거리의 속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운 선생의 가르침을 계승한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1827-1888)도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라고 설파했으며 그의 범설 중 대인접물(待人接物)편에서는 「도가의 부인은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라고 말씀했으며, 충청도 청주의 서택순(동학교도) 집에서 그 집 며느리가 베를에 앉아 베를 짜는 모습을 보고 물기를 “저 누가 베를 짜는가?”라고 서택순에게 묻자

서택순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베를 짹니다”라고 대답하자 또 물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인가?”라고 재차 문의하니 서택순이 나의 말을 분간치 못하더라. 어찌 서군 뿐아랴!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니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라고 설법했습니다. 기존의 여타 종교가 해월 선생처럼 인간을 사랑한 표현을 했었던가요?

기존의 서양 종교가 초월적 신기함, 성스러움을 내세우고 또 추구하면서 현란한 말과 이론으로 치밀한 교리를 바탕으로 일상의 범속함을 부정했었기에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중세 스킨라철학을 완성하여 중세 1천 년을 암흑시대로 이끄는데 일조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논한 신현의 정의는 지금의 현실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고 그러한 초월적 존재감을 내세워야 교인들을 리드(lead)할 수 있었을 터..

이와는 달리 동학은 사람이 곧 한울님임을 내세우고, 동학의 지도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몸소 동학을 실천했었습니다. 그 당시 양반 가문에서 자라난 수운 선생은 집안 여중 2명 중에서 한 명은 며느리로 삼고 또 한 명을 수양딸로 삼아 노비 해방을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2면 하단에 계속